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조경자*
서정대학교 유아교육학과

Empathy and cultural impact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attitude

Park, Ji-Young, Cho -Kyung Ja*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과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Y지역의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65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를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양한 요인을 매개로 변화되므로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문화 교육,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ultural empathy and analysis on the 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and cultural empathy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multicultural sensibility and attitud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 conducted a survey on 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education and understanding attitude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 and enrolled 165 infants with pre teacher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are able to sympathize with cultural areas of the Y. The data were subjected to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form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From the data analysis, first,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derstanding and attitud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cultural empathy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predicting the susceptibility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and understanding attitude. Since cultural empathy can change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future investigation of these factors is needed to increase the 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y conducting follow-up studies that apply these findings to educational programs. Cultural empathy shouldn't be limi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or simply a means to access the field of experiencing the arts, bu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research in teaching and learning on how cultural empathy can be applied to the overall educational curriculum

Keywords :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rresponding Author : Cho -Kyung Ja(Seojeong college)

Tel: +82-10-4338-1665 email: ckj1665@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 2016

Revised October 6, 2016

Accepted October 7,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미래 사회는 열린 생각과 창의적 사고, 이를 토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호 협력할 줄 아는 인간상을 기대한다[3].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 수용할 수 있는 감정과 개방적 사고를 키워감으로써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적인 삶의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36].

최근 급속한 다문화 양상은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흡수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시대를 야기했다. 국내 다문화 가족은 82만명 내외이며 향후 2020년에는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19].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개인적 대응은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Bennett은 문화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교사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인간존엄과 권리에 대한 존중,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세계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구보존이라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로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과 상호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20]. 교사는 자신의 기준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인식 체계로 수용하는 사고가 요구된다[23].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의 중요성은 유아기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 태도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20].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교사 자신의 역할과 태도의 정립 등이 교사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9]. 다문화교육은 각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특성에 관계없이 주류 또는 비주류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가르쳐주는 교육[14]

로 그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사가 다문화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해 나가는 능력이 요구되며, 다문화 감수성은 이에 근원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이란 다양한 문화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수용하는 성질[9]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19]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문화적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정서적 태도이며 이러한 정서적 태도가 요구된다[5].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기본적 관점을 측정하며 이는 곧 다문화 유능성에 대한 능력이자 다문화 역량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28].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33].

교실 내에서 유아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조화시키는 교사의 태도와 기술을 매우 중요하며, 모든 교사들이 지녀야 할 유용한 자질이다[18, 29]. 다문화교육에서 유아교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태도를 스스로 성찰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 간 능력,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 효과적인 교수 전략 탐색 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가치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12, 35]. 유아들이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도록 교사 스스로가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지 점검하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자세와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19].

공감하는 의사소통능력은 개인만의 사고가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참조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문화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실천가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다문화 실천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이다[32]. 문화적 공감은 문화적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도 정의적 측면의 문화적 태도에 속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26, 38, 43]. 문화적 공감은 일반적인 공감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렴을 포함한다[41]. 문화적 공감은 사회

에서의 다양한 인구집단이 직면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 다문화 집단의 태도, 가치,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능력,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공감적 인식을 모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이며[30], 이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에 토대가 될 수 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 유아 관찰과 평가,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 유아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지역사회, 전문적 발달과 리더십, 건강·영양·안전,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은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이다[37]. 문화적 공감은 이러한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 유아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사회의 연계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관련된 변인 탐색한 국내연구들에서는 유아교사의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문화적 역량을 발달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6, 2, 17, 22]. 교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의 역할이 바람직한 교사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21]. 즉, 교사연수, 물리적인 교육환경 개선, 동료의 지원이 실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신념의 변화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독립변인으로서 종속변인인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0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

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실습을 이행하고 온 재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총 1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17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불완전한 자료 5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5부(97%)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교사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유아교사역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최소연[24]이 개발한 문화적 역량 척도를 이규립[19]이 유아교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문화적 지식 8문항, 문화적 기술 9문항, 문화적 태도 7문항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교사의 관찰에 의해 각 문항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점은 31~155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문화적 지식 .89, 문화적 기술 .88, 문화적 태도 .86, 전체 .89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 공감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 척도는 Wang 등[42]이 개발한 SEE(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를 김정연[8]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은 공감적 감정과 표현 15문항, 공감적 관점 취하기 7문항, 문화적 차이 수용 5문항, 공감적 인식 4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항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31~155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공감적 감정과 표현 .77, 공감적 관점 취하기 .78, 문화적 차이 수용 .87, 공감적 인식 .76, 전체 .8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Song, 2010)가 .60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3) 다문화 감수성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en 과 Starosta[31]가 개발하고 김옥순[5]이 보완한 도구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항별로 평정하

며, 각 하위요인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참여도 7문항,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화차이 존중도 6문항,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지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자신도 5문항,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행동을 즐기는 정도인 상호작용 향유도 3문항,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기울이는 주의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주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상호작용 참여도 .87, 문화차이 존중도 .77, 상호작용 자신도 .83, 상호작용 향유도 .82, 상호작용 주의도 .86, 전체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4) 다문화 교육의 이해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ng[39]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 6문항을 번안, 수정한 모경환, 황혜원[13]과 김옥순[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평정하며,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다문화교육 이해1 .87, 다문화교육 이해2 .77, 전체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5) 다문화 교육의 태도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nterotto, Baluch, Greig와 Rivera(1998)가 개발한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척도'를 번안 수정한 최충욱, 모경환 [13]과 서현, 이승은[15]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항별로 평정하며, 각 하위요인은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태도 3문항, 다문화적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5문항, 다문화 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3문항,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태도 .82, 다문화적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78, 다문화 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81,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 .83, 전체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검사 및 자료수집

검사도구의 양호도와 난해점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과 관련이 없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사도구의 이해와 난해한 점은 없었고, 본 검사는 연구대상인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SPSS/PC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다문화 교육 태도 간의 관계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다문화 교육 태도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았다.

Table 1. General tendency of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M	SD	skewness	kurtosis
cultural empathy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45.04	4.04	.51	.40
	Empathic perspective taking	19.57	2.40	.06	-.19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16.08	2.24	.67	1.53
	Empathic awareness	10.75	2.21	-.45	.36
	Total	91.43	7.43	.27	1.18

(N=165)

multi cultural sensitivity	Interact participation	23.63	3.10	.39	-.27
	Also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16.19	2.38	.41	1.87
	Also their interaction	14.78	2.12	.51	1.13
	Interaction also enjoy	6.11	2.12	.35	-.05
	Note also interact	8.62	1.67	-.15	.33
	Total	69.41	7.11	.69	1.59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1	7.14	2.14	-.21	-.11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2	7.86	2.05	.08	1.11
	Total	15.01	3.74	-.11	.57
multi cultural attitude	Attitude to a multicultural environment	12.34	1.84	-.45	.29
	The attitude toward the teacher and cultural role	20.14	3.17	-.38	.18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10.39	1.44	.68	1.01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11.07	1.84	.19	-.32
	Total	54.02	6.77	-.17	.47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 및 태도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M=91.43(SD=7.43)$, $M=69.41(SD=7.11)$, $M=15.01(SD=3.74)$, $M=54.02(SD=6.77)$ 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10.75~45.04, 표준편차는 2.21~4.04, 왜도는 -.45~.67, 첨도는 -.19~1.53의 분포를 이루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6.11~23.63, 표준편차는 2.12~3.10, 왜도는 -.15~.51, 첨도는 -.27~1.87의 분포를 보였다. 다문화 이해와 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7.86~20.14, 표준편차는 1.44~3.17, 왜도는 -.45~.68, 첨도는 -.32~1.01의 분포를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기준에 준하여 이 연구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34].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er competence of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ultural empathy				Total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Empathic perspective taking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Empathic awareness	
multi cultural sensitivity	Interact participation	.39**	.18*	.46**	.03	.42**
	Also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09	.21**	-.08	.32**	.19*
	Also their interaction	.27**	.24**	.25**	-.03	.31**
	Interaction also enjoy	-.14	.21**	-.21**	.25**	-.02
	Note also interact	.27**	.11	.21**	.23**	.31**
	Total	.30**	.31**	.24**	.25**	.41**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1	-.10	.10	-.23**	.28**	-.01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2	.11	.26**	-.04	.23**	.21**
	Total	.01	.20**	-.15	.29**	.11
multi cultural attitude	Attitude to a multicultural environment	.21**	-.08	.29**	-.16*	.15
	The attitude toward the teacher and cultural role	.16*	-.13	.27**	-.31**	.04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06	.08	.30**	-.14	.11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26**	-.04	.24**	-.29**	.13
	Total	.21**	-.07	.33**	-.30**	.11

* $p<.05$, ** $p<.01$

표 2에서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공감적 관점 취하기가 다문화 감수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공감적 인식이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차이 수용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 공감적 감정과 표현은 다문화 감수성 중 상호작용 참여도($r = .39, p < .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감적 관점 취하기는 다문화교육의 이해($r = .26, p < .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화적 차이 수용은 다문화 감수성 중 상호작용 참여도($r = .46, p < .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감적 인식도 다문화 감수성 중 문화차이 존중도($r = .32, p < .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 다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문화적 공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예비유아교사 관련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분산확대인자(VIF)의 범위는 1.73-1.92로 1에 근접하였고,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2.10-2.19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으로써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하며 서로 간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sensitivity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adj R ²	F
multi cultural sensitivity	constant	32.051	6.767		4.736***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398	.159	.226	2.505*			
	Empathic perspective taking	.569	.243	.192	2.341*	.182	.160	8.337***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065	.297	.021	.219			
	Empathic awareness	.676	.236	.212	2.860**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서와 같이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을 18.2%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8.337, p < .001$).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감정과 표현($\beta=.226$), 공감적 관점 취하기($\beta=.192$), 공감적 인식($\beta=.212$)은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 수용은 다문화 감수성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adj R ²	F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constant	6.071	3.500		1.735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108	.081	.118	1.332			
	Empathic perspective taking	.423	.124	.273	3.403**	.187	.166	8.928***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572	.153	-.347	-3.742***			
	Empathic awareness	.477	.122	.285	3.903***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와 같이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교육의 이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 변량의 18.7%($F=8.928, p < .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간의 관계에서 공감적 관점 취하기($\beta=.273$), 공감적 인식($\beta=.285$)은 정적 예측관계를, 문화적 차이 수용($\beta=-3.742$)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공감적 감정과 표현은 다문화교육 이해를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attitude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adj R ²	F
multi cultural attitude	constant	51.033	6.189		8.245***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099	.144	.059	.689			
	Empathic perspective taking	-.563	.220	-.198	-2.552*	.240	.221	12.248***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1.205	.271	.399	4.447***			
	Empathic awareness	-.925	.216	-.302	-4.278***			

*p<.05, **p<.01, ***p<.001

표 5에서와 같이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교육의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교육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 변량의 24.0%(F=12.248, p<.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태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 수용($\beta=.399$)은 정적 예측관계를, 공감적 관점 취하기($\beta=-.198$)와 공감적 인식($\beta=-.302$), 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공감적 감정과 표현은 다문화교육의 태도를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더불어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관련 요인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

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공감적 관점 취하기가 다문화 감수성과 가장 높게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과 표현, 지지 등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역량으로서 교사의 문화지능이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김현경, 김경희의 연구결과[10]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문화역량이 개인 교수효능감에 영향요인임을 밝힌 강정원의 연구[1]와 직무 분야는 다르지만 예비 간호사들의 문화적 공감과 감성지능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김정민의 연구[7]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효립의 연구[22]에서도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수업을 통해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태도에 변화를 보였으며, 남해진, 박승희의 연구[11]에서도 아동의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능력, 문화적 민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연구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의 교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인정해주며 보다 폭넓은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수과정에서 문화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일치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기본 소양을 함양하여 다문화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 중 공감적 감정과 표현이 다문화 감수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문화적 공감 중 문화적 차이 수용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문화적 공감 중 문화적 차이 수용이 다문화교육의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를 인정해주고 이에 대한 차별을 교육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교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정도, 문화적 공감, 문제해결력이 문화적 역량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화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을 요구한 윤갑정의 연구[16]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유아교사는 교실 내의 각기 다른 유아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에서 문화적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능력을 토대로 유아들이 다문화 사회의 시민 역량을 함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함에도 문화적 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수용과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문화적 공감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배출해 내는 것이 교사양성체제 안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감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 변인으로서 문화적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화적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 및 태도가 상호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문화적 공감의 함양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과 교사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이해 및 태도 증진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및 태도의 정적 예측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가 다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공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계획에 중요하게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양한 요인을 매개로 변화될 수 있다. 추후 문화적 공감능력의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공감능력의 다면적 요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문화 교육,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른 이해와 태도로 연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교실 안에서만이 아닌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들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ang, J. W.,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Cultural Competence and Personal Teaching Efficacy in the Area of Art Experience in National Curriculum for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1), pp. 135-154, 2015.
- [2] Go, S. 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hildcare Teacher's Cultural Capabil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2011.
- [3] Kim, Y. O., Seo, H., Park, H. S., Jang, S. N., Yoon, K. S., Park, M. J. & Lee, N. Y., Theory and Practice on the status of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eoul: Hakjisa.
- [4] Kim, O. S., Comparison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between Preservice Teachers in South Korea and China.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18(1), pp. 193-217, 2008.
- [5] Kim, O. S., The stud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 regarding multicultural educati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9.
- [6] Kim, Y. S., Factors affecting Childycare Center Teacher's Cultural Compet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Dongguk Kyonggi University, 2016.
- [7] Kim, J. 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ultural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Gosin University, 2016.
- [8] Kim, J. Y.,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2013.
- [9] Kim, H. Y., Comparison of effect of multi cultural sensitivity on multi cultural teaching efficacy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4.
- [10] Kim, H. K. & Kim, G. H.,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telligence of the Teacher of Young Children And the Efficacy of Multi-cultural Teach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7(2), pp. 190-213, 2013.

- [11] Nam, H. J. & Park, S. H., Effects of a Diversity Education Program on the Students' Empathy Ability, Cultural Sensitivity and Disabilities Acceptance Attitudes in an Inclusive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13(3), pp. 53-76, 2014.
DOI: <http://dx.doi.org/10.18541/ser.2014.10.13.3.53>
- [12] Mo, K. H., Policies and Directions of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6(4), pp. 245-270, 2009.
- [13] Mo, K. H. & Hwang, H. W., A Study on Multicultural Awarenes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focused on Korean and Social Studies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3), pp. 79-100, 2007.
- [14] Park, N. S.,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14(1), pp. 213-232, 2007.
- [15] Seo, H. & Lee, S. E.,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pp. 89-116, 2009.
- [16] Yun, G. J., The Effects of Cultural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9(3), pp. 105-129, 2014.
DOI: <http://dx.doi.org/10.15815/kjcaes.2014.9.3.105>
- [17] Yun, G. J., Directions of Learning Space Organization for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0(1). pp. 87-111, 2015.
- [18] Yun, H. S., A Comparison of Preschool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1), pp. 415-430, 2008.
- [19] lee, G. R.,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sensitivity, nuderstanding, and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 educati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20] Lee, G. R. & Kim, Y. O., The Effects of Integrated Activities with Multicultural Approaches on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6), pp. 75-102, 2010.
- [21] Lee, H. J. & Kim, J. J.,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professionals in multicultural society perceived by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2), 1-25, 2012.
- [22] Lee, H. L.,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5.
- [23] Jung, D. H. & Chang, J. Y., The Beliefs and The Practice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3(1), pp. 309-328, 2009.
- [24] Choi, S. 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 pp. 23-53, 2010.
- [25] Choi, C. O. & Mo, K. H., Investiga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4), pp. 163-182, 2007.
- [26] Choi, H. J. & Woo, M. J.,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5), pp. 315-338, 2012.
- [27] Bennett, M. J.,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global leadership. In R. D. Reineke & C. Fubinger(Eds.), *Interkulturelles management: Konzeption-Beratung _Training*(pp.pp. 205-226). Wiesbaden, German: Gabler, 2001.
DOI: http://dx.doi.org/10.1007/978-3-322-91288-6_12
- [28] Bhawuk, D., & Brislin, R.,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pp. 413-436, 1992.
DOI: [http://dx.doi.org/10.1016/0147-1767\(92\)90031-O](http://dx.doi.org/10.1016/0147-1767(92)90031-O)
- [29] Chamberlain, S. P.,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of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learner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0, pp. 195-211, 2005.
DOI: <http://dx.doi.org/10.1177/10534512050400040101>
- [30] Chappel, M., & Nye, S. , Nevada' core knowledge areas and core competencies for early care and education professionals. Reno, NV: The Nevada Registry, 2007.
- [31] Chen, G. M. & Starosta, W. J.,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 cultural sensitivity scale. http://digitalcommons.uri.edu/cgi/viewcontent.cgi?article=1035&context=com_facpubs, 2000.
- [32] Constantine, M. G., Ladany, N., Self-Report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Scales: Their Relation to Social Desirability Attitudes and Multicultural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7(2), pp. 155-164,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7.2.155>
- [33] Engle, L., & Engle, J., Assessing language acquisi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in relation to study abroad program design.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of Study Abroad*, X, pp. 219-236, 2004.
- [34]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 [35] Marshall, P. L., Cultural diversity in our schools.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2.
- [36] Morrison, G. S.,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10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07.
- [37] NCCIC,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 toolkit, 2009.
http://nccic.acf.hhs.gov/pubs/goodstart/pd_section4.pdf
- [38] Obegi, A. D., & Ritblatt, S. N., Cultural competence in infant/toddler caregivers: Application of a tr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9(3), pp. 199-213, 2005.
DOI: <http://dx.doi.org/10.1080/02568540509595065>
- [39] Pang, V. O., Multicultural education: A caring-centered,

reflective approach(2nd ed.). New York: McGraw Hill, 2005.

- [40] Ponterotto, J. G., Baluch, S., Greig, T., & Rivera, L., Development and initial score validation of the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8(6), pp. 1002-1016, 1998.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98058006009>
- [41] Ridley, C. R., & Lingle, D. W.,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4th ed., pp. 21-46). Thousand Oak, CA:Sage, 1996.
- [42] Wang, Y. W. M. Davison, M. M., Yakushko, O. F., Savoy, H. B., Tan, J. A. & Bleler, H. K., The Scale of Ethnoculture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pp. 221-234,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0.2.221>
- [43] Weaver, H., The elements of cultural competence: Applications with Native American client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3(1), pp. 19-35, 2004. DOI: http://dx.doi.org/10.1300/J051v13n01_02
-

박 지 영(Ji-Young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BK사업단 연구원
- 2014년 2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문학,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평가

조 경 자(Cho -Kyung Ja)

[정회원]



- 2009년 9월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09년 9월 : 서정대학교 다문화센터장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유아교육, 다문화아동 교육